

## 中國思想史 研究의 方法論 問題

孫 歌\*  
김 홍 수\*\*

### • 目 次 •

1. 현대 중국사상사 연구의 배경-중국의 “언어 공간”
2. “과학과 현학” 논쟁의 사상사적 의미
3. 중국 80년대 이래의 사상사 방법론의 특징

이렇게 세 종류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 사상사 범주에 속하는 문제를 토론하는 자리에 있어서, 나는 내 발언에 대해 엄격히 범위를 규정하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서술하려는 것은 현대 중국대륙의 학자들이 그들의 연구속에서 구현하고 있는 주요 사고방식과 문제의식이다. 아울러 중국 언어라는 “공간”속에서 사상사 연구의 다른 방식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를 확정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내가 의도하는 작업은 중국사상사 연구의 개황 및 그 발전과정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가운데에서 방법론 문제와 관련되는 부분을 뽑아내려는 것이다. 나의 이런 작업의 동기는 중국 사상사 연구와 다른 나라 사상사 연구의 매개점을 찾으려는 것이다.

일개 중국의 연구자로서, 나는 중국문화가 자기만의 특정한 공간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이 공간은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중국 학자들이 이 한계 내에서 문제를 토론하는데 있어서, 준수해야 할 것은 “한계 내의 규칙”, 즉 중국의 학술규범이다. 하지만 중국의 학술규범을 무한히 확대할 수는 없으며, 사실은 이것을 소홀히 하였고 적어도 이미 동아시아 연구자들 사이의 교류에 두 가지 장애를 조성하였다. 첫째, 중국의 연구자는 동아시아 이른바 “유교문화권”의 다른 나라 사상사의 독립성에 대해 응당 가져야 할 중시를 결핍하고 있으며, 항상 습관적으로 자신의 사고방식으로 다른 나라의 사상사적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둘째, “중화사상”에 대한 반감과 중국 학술규범 자체의 특성에 대한 경시 때문에, 다른 나라 연구자들은 중국 연구자들과 교류할 때에 항상 자신들의 학술표준을 중국 연구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 社會科學院 教授

\*\* 영남대 옮김

오늘 이러한 장소는 이 두 가지 장애를 초월하는 기점을 제공하였다. 나는 중국사상사 방법론에 대한 연구 토론을 통해서 중국 학술규범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고, 또 그것의 한계성을 명확히 하고, 따라서 다른 학술규범 속에서 사고하는 각 나라의 학자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매개점을 찾고자 한다.

## 1. 현대 중국사상사 연구의 배경—중국의 “언어 공간”

중국 사상사 연구와 다른 나라 사상사 연구는 한 종류이고, 또한 자신만의 특정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관점을 논술할 때 이러한 배경지식은 종종 감추어져 왔다. 왜냐하면 중국인에 있어서 이러한 배경지식의 대부분은 “오랜 세월에 걸쳐 사회적으로 약속되어진” 감각으로 언어로써 표현하기 어렵고 심지어 의식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똑같이 일본과 한국, 세계에서 언어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내에 존재한다). 외국 연구자,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생략해 버리는” 언어 공간은 중국 학술사와 사상사를 이해하는데 있어 최대의 장애이다.

나는 중국사상사 연구의 배경을 칭하여 “언어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Pierre Bourdieu 사회학 이론의 핵심개념인 “장(場)”을 차용한 것이다. Bourdieu의 이론에 따르면 문화생산은 특정한 “장”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하나의 장 마다 모두 자기만의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장에 참여하는 자는 또한 모두 반드시 이러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동시에, 하나의 장은 모두 가능성의 공간, 즉 소유하고 있는 공동의 문화를 참고해 보면 공통의 역사적 제약 하에서 새로이 창조되기 때문에 문화생산의 가능성은 한계가 있다.<sup>1)</sup> “공간” 앞에 “언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내가 “장”의 범위를 지식인의 이성적 사고의 특정한 영역으로 한정하고, 이와 같은 전제 하에서 중국대륙의 사상사 연구방법론의 기본 특징을 토론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1) P. Bourdieu의 사회학 이론과 관련하여, 그의 다음과 같은 저서의 일역본을 주로 참조하였다. 『實踐感覺』(みすず書房), 『結構與實踐』(藤原書店), 『皮埃爾·布魯蒂歐 跨領域的人學』(藤原書店). 내가 Bourdieu의 이론으로부터 받은 최대의 계시는 역사를 대하는 시각이다. 그가 제출한 “객관주의”의 개념과 그의 “장”이론을 결합한 사고는, 나로 하여금 사상과 문화, 더 나아가 그 연구대상이 되는 제과학의 한계라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한 종류의 문화의 한계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객관화된 입장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Bourdieu의 객관주의와 구조주의는 하나의 구별, 즉 그는 객관주의의 실천성을 강조하고 실천감각의 천차만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연구자로 하여금 복잡하게 연구대상을 동일시하는 전제 하에 역사에 진입시킨다. 그러나 단지 이론 구조의 표면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나는 Bourdieu의 실천감각, 가능성의 공간(界, 場), 객관화된 주체의 객관화와 같은 중요한 단어를 결합하여 사고하고 아울러 시험적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역사를 다루어 보았다.

보통 1840년 아편전쟁에서부터 1919년 5·4운동까지의 역사를 칭하여 중국 근대사라고 한다. 그것의 두 가지 기본특징은 외국의 침략에 대한 대항과 이민족 통치의 전복이다. 이 양자의 결합은 근대 중국에서 나라와 민족의 멸망에 대한 공포를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이런 공포는 결코 단순히 문화상의 자아 확인으로 전화된 적이 없다. 근대 이래 중국의 언어 공간 속에는 일부 다른 문화 가치관, 예를 들면 어떻게 전통문화를 다룰 것인가, 어떻게 과학의 기능을 평가할 것인가 등이 존재했다. 그것들은 상호제약의 관계를 구성하였고, 이러한 제약은 중국 근대 이래의 발전방향을 크게 결정하였다. 복잡한 역사적 원인에 의해 긴 시간 속에서 이러한 상호제약의 관념은 동서의 문화대립으로 해석되어졌고,<sup>2)</sup> 오늘날 동양은 물론 서양의 학자들도 모두 이와 같은 해석이 지나치게 단순한 것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동서양 대립의 사유방식을 버린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한 나라 문화와 다른 나라 문화의 관계를 해석할 것인가? 다원 문화 속의 일원이란, 단지 한 나라 문화와 다른 나라 문화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국가 혹은 민족을 기본틀로 삼아 그 나라의 사상사를 고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효한 것인가? 근현대 이래 중국의 다른 문화적 취향 사이의 제약관계를 고찰할 때, 내가 만약 국가를 원점으로 삼아 분석한다면 하나의 기본 사실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했다. 근대 이래 중국사상사 가운데 중대한 분기는 결코 중국문화의 특수성을 기본 전제로 삼은 것은 아니며, 특히 20세기 초 중국의 사상계는 서양 각국의 다른 사상 유파와 중국의 사상을 한 덩어리로 섞어서 토론하는 경향이 있었기에 사상계의 분기점은 종종 똑같이 서양 학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 주로 존재해 왔다. 다시 말해서, 20세기 초의 가치관 대립은 중국문화와 서양문화의 여러 종류의 가능성과의 접촉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이지, 근대와 반근대, 서양과 동양과 같은 직접적 대립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사상사 연구방법론의 측면에서, 나는 5·4 전후의 관념과 방법론이 중국 지식인의 사유방식에 끼친 영향과 지극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진화론의 역사진보관, 그것은 주로 다윈의 생물진화학설에서 나온 것이다. 경험실증주의, 그것은 존 듀이와 그의 중국제자 호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질결정론의 일원론 양식, 그것은 중국 초기 마르크스주의자 진독수, 이대교 등에 의해 제창되었다. 경제치용의 도덕목적론, 그것은 중국의 전통이 현대 지식인에게 남겨준 유산이다. 이러한 관념과 방법은 다른 정치단체에 속하거나 신앙이 각기 다른 지식인

2) 중국 초기의 마르크스주의자 진독수, 이대교는 자신들이 유교전통을 타파할 때 의식적으로 동서문화의 대립을 강조했다. 그들의 이와 같은 방법론은 이후의 중국 사상계에 지극히 큰 영향을 끼쳤음은 틀림없다. 일본의 竹内好는 일본의 근대화 과정의 우려를 나타내는데, 마찬가지로 중국문화가 서양문화에 대한 저항을 강조한 바 있다. 그의 이러한 사유방식은 똑같이 일본의 여러 세대에 영향을 끼쳤다.

에 의해 공동으로 창조되었고, 그 중에 역사진화론과 도덕목적론은 특히 각 파의 지식인이 공통적으로 준수한 규칙이다. 이런 관념과 방법은 사상사 논쟁을 거치면서 강화, 수정되었고 중국 지식인의 기본적 사유의 특을 형성했다.

## 2. “과학과 현학” 논쟁의 사상사적 의의

중국의 사상사 연구방법론의 자각은 대략 근대 서양 논리학의 번역 소개에 의해 비롯되었다. 예를 들면 엄복이 번역한 『밀의 논리학(穆勒名學)』은 서양 논리학의 번역 소개로써 최초는 아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중국 학계에서 방법론에 대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서양 논리학의 각 유파는 중국에 모두 영향을 끼쳐서 중국 사상사 방법론의 다양한 유파, 예를 들면 엄복, 도효실 등의 형식논리학, 호적의 논리실증주의, 이달, 장신부의 변증법 등을 형성했다. 이와 같은 방법론의 자각은 직접 청말과民国 초의 학자들이 중국 고대의 전적 속에서 방법론적 요소를 얻어 내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이전의 중국 학계에서는 일찍이 없었던 현상이었다. 예컨대 당시의 학자들은 방법론의 측면에서 새로이 묵가의 학술을 고찰하였고 장태염, 호적, 양계초는 모두 이에 대해 전문적 저술을 하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근대 이래 사상사 방법론의 다른 중요한 근원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진화론이다. 『밀의 논리학』을 번역했던 엄복은 헉슬리의 『진화론(天演論)』을 번역 소개하였는데, “생존경쟁, 자연도태(物競天擇)”,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진화론적 관점은 근대 중국에 강렬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호적의 이름인 “적(適)”자도 “적자생존”에서 취한 것이니, 이로부터 그 사태의 일부분을 엿볼 수 있다. 청일전쟁 전후에 진화론적 관점이 중국 지식인에게 끼친 영향은 확실히 “나라와 민족의 멸망”이라는 우려를 강렬히 표현하고 있는 동시에 그것은 또한 “중화사상”의 현대적 형태, 즉 기타 유색인종에 대한 경시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sup>3)</sup> 그러나 이것은 단지 문제의 한 측면일 뿐이다. 다른 하나의 측면은 진화론이 “과학적” 무기로써, 또한 근대 이래 특히 5·4 이래의 지식인의 반전통의 방법론적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사상사 연구방법을 고찰할 때, 단지 서양 논리학의 영향에

3) 일본 연구자 坂元廣子는 현지의 논문 「中國民族主義的神話」(「思想」, 1995, 3 岩波書店) 속에서 중국 역사 상의 문화적 우월감과 근대 이래의 사회진화론의 결합이 조성한 나라와 민족의 멸망이라는 우려와 종족 경시의 관념에 대해 아주 상세하고 빠짐없이 논술하고 있다. 이 논문은 논술의 범위를 청일전쟁 전후의 역사 시기에 한정하고, 또한 진화론과 중국 근대 의식형태 속의 민족주의의 감정과의 관계라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관심은 다만 사회 다원주의가 당시와 그 후 중국 현대 지식인의 방법론에 끼친 영향에 있으며, 진화론과 현대 지식인의 사유방식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시도하고 있기에, 논문이 치중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진화론의 영향도 사실은 똑같이 중요하다. 진화론의 반전통적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작용은 줄곧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의 사상과 의식형태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주의하기 쉬웠지만, 그것이 방법론적 측면에서 일으킨 작용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서술하기 어렵다. 나는 진화론이 중국 근대사상사에서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며, 아마도 중국 지식인이 이후 수많은 서양의 사유방식 속에서 변증유물주의 사상 방법을 선택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고, 진화론이 중국 근대사상에서 야기한 작용 또한 후에 유물변증법의 '중국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다윈, 헉슬리, 스펜서의 진화론적 관점이 20세기 초 일시적으로 성행할 때, 호적은 이 학설이 가지고 있는 혁명적 의의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실용주의의 대표자인 존 듀이의 제자로서, 그가 5·4 시기에 진행한 "문학개량(文學改良)"의 주요한 사상적 수단은 진화론과 듀이의 실용주의에서 나온 것이다. 호적이 진화론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생존경쟁과 자연 도태"로 "류 불변(類不變)"에 대한 부정이었다고, 그는 다윈의 진화론이 기독교의 우주관에 대해 혁명적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류(類)'와 '유래(由來)'를 같이 연계한 것은, 곧 혁명의 표시이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철학자는 언제나 '류'는 불변적이므로, 고정 불변하는 것은 곧 '유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윈은 '류'가 변화하는 것임을 증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류'가 변화하는 이유의 근거를 지적하였다.…… 다윈의 무기는 단지 그가 삼십년 동안 수집한 증거들이다. 삼십년 동안 수집한 과학적 증거는 이천년 동안 존중되었던 종교적 전설을 타도했다."<sup>4)</sup> 그러나 호적 자신은 다윈의 진화론을 직접 중국 전통에 대한 급진적 부정으로 진화하지 않았고, 그는 사용한 것은 아주 기술적인 수단이었다. 그는 줄곧 자신이 문학에 대해 "역사 진화의 태도", 즉 신문학으로 구문학을 대치하는 것이 역사발전의 추세로 생각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문학혁명"의 구호는 진독수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그 후, 전통에 대한 격렬한 비판은 또한 노신, 주작인, 진독수와 같은 지식인에 의해 진행되었고, 호적은 계속 "문제"의 토론을 통해서 신문화 운동에 참여하였다<sup>5)</sup>

호적의 상술한 인용문 속에서, 주의할 만한 것은 그의 "과학 증거"에 대한 견해이다. 그는 과학 증거야말로 다윈이 종교를 타도하는 유일한 무기라고 생각했다. 호적이 자신의 과학 방법론을 세울 때, 그가 제창한 구호는 "대담하게 가설하고, 세밀하게 증거를 찾자", "문제를 많이 연구하고, 주의(主義)를 적게 토론하자"라는 것이다. 호적의 "증거" (즉, 사실)에 대한 의욕은 그의 과학 방법론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헉슬리의 "증거를 제시하다"에 대한 이해는 단지 경험실

4) 『胡適文存』 2집 2권, 234-240 쪽.

5) 胡適, 「文學改良獨議」, 『建設的文學革命論』, 『文學革命運動』 참조.

천의 측면에 머물고 있다. 중국 연구가 왕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가설이라는 개념은 사실명제에 대한 확실한 회의를 포함하고 있다. 호적은 여지껏 증거와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에 대한 회의를 포함하고 있다. 호적은 여지껏 증거와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에 대한 회의라는 이러한 인식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의 이러한 방법론의 특징은 청조의 실증을 중시하고 귀납, 증거를 찾는 “박학(朴學)”에 기원한다.<sup>6)</sup> 호적의 사실에 대한 신뢰의 태도는 중국 지식인의 “과학 증거”에 대한 이해를 구현하고 있다. 증거는 바로 사실이며, 그것은 수집하는 것이지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호적 자신조차도 중국의 고증학이 비록 정밀하지만, 단지 고서의 정리에 사용되었을 뿐 실험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탄식했다. 호적의 자유로운 지식인의 입장과 그의 이후 정치적 선택은 그의 사상이 아주 긴 시간동안 대륙의 주된 의식형태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법론적 측면에서 그가 중국 지식인에게 끼친 영향은 한층 더 분명히 드러난다.

진화론의 “증거를 제시하다”라는 것을 중국 학술전통의 사실 증거를 찾는 방법으로 전화한 것이, 결코 진화론의 “진보사관”이 당시의 사상계에 반전통의 사상적 무기를 제공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다. 문학혁명의 기수로 간주되는 진독수의 진화론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다. 진화는 바로 창조이고, 진화는 혁명에 의해 조성된다.<sup>7)</sup> 중국 현대사상사에 있어서, 진독수가 일으킨 중요한 작용 중의 하나는 진화론을 “마르크스주의화”한 것이다. 호적은 1922년 문학혁명이 마무리될 때, 그는 결코 진독수의 급진적 역사진화론과 자신의 증거를 제시하는 점진적 문학사관 사이의 불화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진독수의 용기가 자신의 “너무 신중하다”라는 결점을 보완했다고 말했다.<sup>8)</sup> 중국 현대문학사의 발단이 되는 백화문 운동은 1917년 호적이 발표한 『문학개량추의(文學改良芻議)』로부터 1922년 국민학교의 국어과목 전부를 “국어”(즉, 백화문)로 고쳐 사용하기까지 단지 오년이 걸렸을 뿐이다. 이것은 진독수를 대표로 하는 급진적 진화론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 현대사상사에 있어서, 근대에서 1920년대 초는 다원화 시기였고, 구미의 다른 사상이 동시에 중국사상계에 소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 중국화되었다. 바로 오치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에는 순수한 서양학자도 없고, 또한 순수한 중국학자도 없다.<sup>9)</sup> 중국 현대사상사의 중대한 분기는 바로 이러한 “순

6) 『學人』 제1집, 1991년 11월, 참조. 왕휘는 그의 시리즈 논문 속에서 과학이라는 이 하나의 개념의 중국 근현대 사상사 속에서의 내포를 심도있게 토론하고 있는데, 그것을 서양과 중국 전통문화라는 두 종류의 배경 속에 놓고 고찰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왕휘는 특별히 중국 현대 지식인이 사용한 “과학”이라는 개념과 “격물치지”는 심후한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지만, 결코 Scientism과 동의어는 아니다

7) 『文學革命論』, 『新文化運動什麼』, 『中國新文化運動史資料』, 上海光明書局, 1934년, 참조

8) 『文學革命運動』, 1922년.

9) 『科學與人生觀』에 실려있는 「一個新信仰的宇宙觀及人生觀」 참조. 오치휘는 논문 속에서 호적은 “중국학자이면서 서양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양수명은 “인도학자이면서 삼할은 서양

수하지 못한” 학자들 사이에서 발생했다. 어떤 역사적 단계 속에서 사상사의 가장 자리로 배척되어진 호적과 같은 학자는 바로 동, 서양의 특색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기에, 결국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었다. 임서와 같은 “순수”한 국수주의자는 오히려 빨리 역사적 사명을 마감해서, 사상사에서 잊혀져 버렸다.<sup>10)</sup>

문화혁명이 끝난 후, 1923년 “과학과 인생관” (또는 과학과 현학) 논전이 발생했다. 이 논전은 연경대학 철학교수 장군매의 “과학은 인생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강연에 대한 북경대학 지질학교수 정문강의 중국과 서양을 절충한 현학<sup>11)</sup>을 지탄하는 글에서 비롯되어 대규모의 논전으로 발전되었다. 양계초, 장동손, 오치휘 등은 분분히 의견을 발표하였으며, 진독수와 호적도 논쟁에 참여했고 또 각각 사후(事後)에 출판된 『과학과 인생관』 논쟁 문집의 서문을 썼다. 이 논전 속의 “과학”이란 서양의 개념에서 나온 것이고, 이점에 대해 논전의 양측 모두 이견이 없다. 그러나 반대로 “현학” 혹은 “인생관”은 단지 중국의 산물이 아니다. 예를 들면 쇼펜하우어, 베르그송, 공맹, 석가를 모두 인생관이라는 이름 하에 포함시키고 서양철학과 중국철학의 우주관과 인생관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 오치휘가 논쟁의 참여자는 모두 똑같이 동, 서양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은 당연하다. 사상사 방법론에 대해 말하면 과학과 인생과 논쟁은 몇 가지 중요한 범주를 명확히 제출하였다. 그것들은 인과필연성,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이원화, 주관과 객관 등이다. 이런 것들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토론되지만 사실은 신앙문제이고, 당시 지식인의 관심은 주로 신앙을 어떻게 “과학화”하느냐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또한 진일보하여 도덕문제로 확대되었다. 그런 까닭에 이 논쟁 속에서 진정 과학 규범과 유관한 문제, 예를 들면 참과 거짓은 무엇인가, 무엇을 과학 지식론이라고 하는가 등의 문제는 겨우 한 번 곁들여 졌을 뿐, 진정으로 토론되지 않았다. 오치휘는 맨 마지막에 이 논쟁의 승부를 결정지었는데, 과학가가 우위를 차지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우주일원론은 실제로 강한 “현학”의 색채를 띄고 있다.<sup>12)</sup> 이 논쟁의 특징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과학과 현학의 분기점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대립에 있지 않고 (비록 이 문제를 언

사상, 철학은 중국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리고 양계초는 “서양학자이면서 중국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10) 林紓는 5·4 시기 보수파의 구작가(舊作家)이며, 단호히 백화문 운동을 반대했다. 1919년 그와 북경대학교 교장인 채원배 사이에 고문과 백화문에 관한 논쟁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신구논쟁(新舊之爭)”의 전형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즉시 백화문 운동의 승리로 끝났고, 임서는 곧 사람들에게 잊혀졌다

11) 張君勱의 주요 저작은 「人生觀」, 「再論人生觀與科學并答丁在君」, 「科學之評價」, 「玄學與科學」, 「玄學與科學的討論的餘興」이며, 모두 「科學與人生觀」(東亞圖書館編, 1925년)에 실려 있다.

12) 王暉, 「吳稚暉與中國反傳統主義的科學觀」, 「學人」 제3집, 1992년, 참조. 이 논문은 오치휘의 과학관적 현학의 특징과 중국의 전통적 이학의 관계에 대해 매우 훌륭하게 분석하고 있다

급하더라도, 그것이 문제의 난점은 아니다), 동, 서양 내부에 모두 존재하는 철학 우주관의 문제에 있다. 둘째, 논쟁의 참여자를 단순히 과학과 현학의 양파로 나눌 수 없고, 이 논쟁이 그 후의 지식인의 사유방식에 끼친 영향을 살펴볼 때 그것의 진정한 분기점은 이른바 “과학파”의 내부에 존재하며, 과학파와 현학파의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과학파로 간주되는 호적, 진독수, 오치휘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호적의 과학관은 “증거”에 의해 “가설”을 수정하는 것인데, 그는 이것을 “자연주의의 인생관”, 즉 우주관과 인생관의 철저한 “지식화”라고 칭했다.<sup>13)</sup> 진독수의 과학관은 물질일원론의 유물사관인데, 그는 형상적으로 그와 호적의 분기를 자신은 지식과 사상, 언론, 교육을 “경제의 아들”로 간주하고 호적은 “경제의 형제”로 간주하는데 있다고 말했다.<sup>14)</sup> 호적과 진독수의 분기는, 전자는 사상과 지식이 또한 사회를 변경시키고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후자는 사상과 지식 등은 “심적 원인(心的原因)”이기 때문에 경제와 함께 논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데 있다. 그들은 함께 이 논쟁의 문집에 서문을 쓴 후, 또한 “심물(心物)”의 분기에 대해서 각각 한 편의 “부주(附注)”를 써서 서문 뒤에 덧붙였는데, 똑같이 과학이란 이름 하에 인생관과 우주관을 구별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오치휘의 과학관 또한 그들과 다르다. 오치휘는 생물학의 관점에서 물질과 정신을 통일하였고 진화론의 관념으로 호적과 진독수 두 사람이 서로 대립할 수 밖에 없었던 심물의 대립을 통합하였다.<sup>15)</sup> 과학파와 장군매, 양계초 및 현학파의 연장으로 간주되는 “신유가”의 분기와 비교하자면, 호적과 진독수 그리고 오치휘 사이의 다른 “과학관”의 논쟁이야말로 중국 사상사 방법론의 진정한 분기의 소재이다. 그들은 똑같이 역사진화론을 신봉하였고, 똑같이 과학의 물질성을 인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치성은 또한 이후의 중국 사상사를 연구하는 각 파의 공통점이다. 하지만 그들의 방법론의 분기는 또한 이후 사상사 분기의 문제점의 소재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후의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과학논전이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기본적 대립관계는 크게 간략화되었다.<sup>16)</sup> 이와 같은 간략화는 당연히 다방면의 역사적 이유를

13) 胡適, 「科學與人生觀序」, 東亞圖書館, 1925년, 참조

14) 陳獨秀, 「科學與人生觀序」, 東亞圖書館, 1925년, 참조

15) 吳稚暉, 「一個新信仰的宇宙觀及人生觀」, 東亞圖書館, 1925년, 참조

16) 예를 들면 광담파는 「近五十年中國思想史」(北平人文書店, 1936年)에서 이 논전을 “중국종법 봉건농업사회 사상과 서양 공업자본사회 사상의 충돌”로 귀결지었다 그리고 진독수와 호적의 분기를 유물과 유심, 사회주의와 공업자본주의의 충돌로 해석하였다 이택후는 「中國現代思想史論」(東方出版社, 1987年)에서 현학파를 현대신유가의 처음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과학파를 중국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의 출발점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모두 오치휘의 논쟁 속에서의 역할에 대해 회피하고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광담파는 그의 저술 속에서 오치휘에 대해 전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그의 과학논전에서의 작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모두 과학론의 사회적 효과를 강조함으로써 진독수를 비호했다.



가지고 있다. 직접적 이유는 과학논전이 순수한 학술논쟁이 아니라 “신앙논쟁”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그것은 과학, 신앙과 같은 개념이 학술영역을 초월하여 신앙의 추상적 “부호”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간접적 이유는 논전 후기 마르크스주의자의 개입에 의해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이 중국 사상계에서 “과학적 세계관”으로 믿어지게 되었고, 진독수가 논전 시기에 견지한 물질일원론이 점점 중국 사회의 주된 의식형태가 되면서 호적과 오치휘의 과학관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물질일원론을 강조하는 동시에, 또한 서양과 동양의 절대적 대립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급진적 입장은 그와 대립되는 양수명, 웅십력과 같은 “현대신유가”를 강화시켰고, 다시 “동양과 서양”, “보수와 혁신”이라는 사유의 간략화된 틀을 형성시켰다. 과학논전이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학술적 가능성은 왜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는가, 이것은 중국 사상사와 사회사 연구의 하나의 중요한 시각이다. 내가 여기서 강조할 수 있는 하나의 단순한 사실, 즉 과학논전, 이 다른 과학관 사이의 논전은 단순히 과학과 현학 사이의 논전이 되었고 중국 지식인이 진정한 과학적 사유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되었으며, 그리고 “과학”에 대한 이해는 겨우 개념의 추상적 표면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 논전은 “과학”이 중국의 권위성을 공고히 하였고 인과율, 진화론, 유물론, 객관적 표준 등의 개념이 아직 엄격히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채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 포함되어 자명한 전제로 되었다. 이후 거의 반세기동안 국제, 국내의 정치, 경제 각 방면의 원인에 의해서 중국 지식인은 점점 이러한 “전제”에 대해 질의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40년대 후기 점차 격상된 의식형태와 정치적 권리의 결합이 확대되면서, 다시 이러한 추상성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라도 보충할 수 있는 개념은 논적을 압도하는 정치적 도구로 변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40년대 호풍이 “주관전투정신(主觀戰鬪精神)”을 제창할 때 그의 운명은 과학논전 시기의 장군매보다도 더욱 더 비참했다.<sup>17)</sup> 이와 같은 일원론의 사유방법은 중국의 몇 세대 연구자들을 지배하였고, 특히, 50~60년대에는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 당시 5·4 이래 간략화된 사상 방법은 한층 더 간략화되었다. 철학의 영역에 있어서 인식세계의 유형은 “객관”, “현실”을 표준으로 하는 환원의 과정으로 변하게 되었다. 역사의 영역에 있어서 현실은 바로 계급투쟁을 의미했다. 당시 사람들의 사유의 추세는 다음과 같다. 세계는 객관적 존재이고 일체의 정신현상은 모두 물질 (즉, 경제관계, 계급관계) 속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은 감히 거짓이 증명되지 않은 객관 물질적 “원인”을 회의할 수 없었고, 따라서 또한 곧 해석할 수 없는 “결과”도 없게 되었다.

17) 1945년 胡風은 「置身在爲民目的鬪爭裏面」을 발표했고, 작가는 투쟁의 주체로서 부단히 “자아확장”, “자아투쟁”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출하여 “주체론”에 대한 비판과 “현실주의”에 대한 토론을 불러 일으켰다. 50년대 호풍은 마침내 “반당분자”로 몰려 참혹한 박해를 받았으며, 그의 “주관전투정신”은 죄상 중의 하나로 되었다.

이와 같이 단순한 논리는 당시에 “과학”으로 불리워졌고, 과학논전 시기에 “과학의 필승(科學必勝)”을 주장한 호적이 “증거를 제시해서(拿證據來)” 저술한 『홍루몽(紅樓夢)』 연구는 50년대에 도리어 나쁜 것, 비과학적인 “자본가 계급의 학술”로 취급당하게 되었다. 정치와 의식형태적 원인을 제외하면, 개념적 공허가 중국 학술계에 이러한 쓴 경험을 제공했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음미의 여지가 있다.

### 3. 중국 80년대 이래의 사상사 방법론의 특징

중국의 문화대혁명은 1976년 종결되었다. 사상사 연구의 새로운 규범의 형성은 80년대에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연구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문화대혁명 전이나 혹은 문화대혁명 중에 고등교육을 받은 세대였고, 그들의 연구 속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색을 고찰할 수 있다. 첫째, 그들의 연구는 대부분 30년대에서 문화대혁명이 종결되던 시기까지의 주된 의식형태를 비판하는데 의도가 있었다. 둘째, 그들의 사고는 여전히 그들이 반대하는 주된 의식형태의 특징을 구현하고 있다. 이택후를 이 시대의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다.<sup>18)</sup> 대표작 『중국고대사상사론』, 『중국근대사상사론』, 『중국현대사상사론』 속에서 이택후는 중국사상사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발전과정의 맥락에 대해 기본 구상을 제출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가 사용한 것은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의 틀, 즉 사회적, 경제적 형태를 가지고 사상사 문제를 해석하였다. 예를 들면 목가를 “소생산 노동자의 사상적 전형”으로, 송명리학을 후기 봉건주의 사회의 산물로, 강유위 사상체계를 진흥지주 자본가계급을 비판하는 봉건사회의 주장으로 해석한 것 등이다. 이택후는 중국 사상사의 발전을 봉건사회로부터 자본주의사회로, 근대로부터 현대에 도달하는 사상적 진보과정으로 간주하였다. 그의 이론적 틀 속에서 “현대화”는 하나의 의심할 수 없는 역사 진화의 귀결점이다. 그가 1949년 이후의 중국 사회형태를 유보적 형태로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역사진화론이 이 때문에 영향을 받은 적은 없었다. 동시에, 이택후가 사용한 봉건주의, 자본주의, 근대, 현대 등의 개념은 결코 엄격히 범위가 규정된 적이 없었고, 그의 “서양”이란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것도 또한 뚜렷하지 않다. 이와 같은 사유방식은 바로 중국 사상계의 50년대 이래 주된 의식형태가 조성한 방법론이다. 그렇지만 이택후는 여전히 중국사상사의

18) 이택후는 철학 연구자로 간주되며, 독일 고전철학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였다. 하지만 그의 공헌은 오히려 사상사 측면의 “계몽”에 있다. 그의 칸트철학 연구는 “육경은 나의 주석이다(六經注我)”라는 방식을 채용하였다. 즉 칸트철학의 연구를 통해서 당시의 중국 학술계에 “주체성”, “인성”과 함께 객체와 계급성의 존재와 합법성을 확립하였다. 그의 세 부분의 사상사 연구저작도 또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요 인물이다. 상술한 이론적 틀 속에서 그가 제출한 몇 가지 핵심개념은 이 틀을 타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구비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문화-심리구조”와 “적전(積澱, 오랜 기간 누적된 찌꺼기)”이다. 『중국고대사상사론』의 첫 편에서, 그는 공자사상이 “역사 상에서 중국민족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친 문화-심리구조를 형성하였으며”, 그것은 “비교적 독립된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서 오래도록 지속 발전되어 왔다”<sup>19)</sup>는 것을 제기했다. 그리고 “적전”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인류의 심미활동 속에서 누적된 이성과 정감, 신앙<sup>20)</sup>을 해석하는데 사용했다. 당연히 이 두가지는 지극히 애매하고 공허한 개념이며, 게다가 이택후는 그것들에 대해 이미 어떠한 한계도 규정할 수 없었고, 또한 지극히 임의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80년대의 중국 학술계에서 이 두 가지 개념은 오히려 일세를 풍미하였고 널리 사용되었다. 그 원인은 바로 그것들이 “사상”, “주관”, 물질적, 경제적 활동의 제약을 벗어난 독립발전의 가능성을 암시했다는 데 있다. 이와 동시에, 이택후는 또 “주체성”, “인성(人性)”이란 개념을 제출하였는데, 이것은 또한 그가 왜 문학평론을 쓰게 되었는가에 대한 주요 원인이었다.<sup>21)</sup> 이 두 가지 개념은 그의 창조가 아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에 의해서 명확히 제출되었고, 그것들이 일으킨 작용은 똑같이 물질일원론, 경제결정론의 틀을 타파하는데 있었다. 이택후의 사상사 연구는 80년대 중국 학술계에 하나의 중요한 과до기를 조성하였고, 그것의 의미는 중국 학술계를 반세기란 오랜 시간동안 통치해 왔던 “변증유물론(辯證唯物論)”의 한계를 뚜렷하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한 이와 같은 방법론의 내부로부터 그것을 변화시키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즉시 문학과 역사 등의 연구영역에서 호응을 얻었고, 80년대를 중국의 학술이 주체, 문화, 심리, 인성을 추구하는 비교적 독립된 시기가 되도록 하였다.

중국의 89년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90년대부터 사상사 연구는 새로운 시기로 진입하였다. 외국 연구자들 눈에 이것이 “복고”의 시기, 즉 연구자들이 5·4 이래 부정되었던 “전통”에 대한 공전의 흥미로 보여지겠지만, 이것은 단지 표면적 형상일 뿐이다. 방법론에 관해서 말하면 이택후의 대표적 방법론이 비록 그 유효성을 상실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권위성은 잃어버렸다. 중국의 학술계는 실제로 다시 5·4 시기의 다원화 단계로 되돌아가 근본으로부터 진

19) 「孔子再評價」, 『中國古代思想史論』, 人民出版社, 1985년, 참조.

20) 「美的歷程」,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9년 「美感談」(『李澤厚哲學美學文選』, 湖南人民出版社, 1985년, 참조) 속에서, 그는 積澱을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었다 하지만 이 용어 자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엄격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21) 이택후가 저술한 문학평론이 수록되어 있는 그의 「中國現代思想史論」은 흥미로운 사건들로 뒤얽혀 있다. 80년대에 있어서 문학과 사상은 거의 동일시되었고, 이것은 당시의 다른 한 사람,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학자 劉再復이 쓴 魯迅 연구 속에도 또한 두드러지게 구현되고 있다 「魯迅美學思想史稿」(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1)와 「性格組合論」(上海文藝出版社, 1986) 참조.

독수, 이대교, 등중하 등의 변증유물론 이외의 방법론의 실행가능성을 찾고 있다. 이른바 “학술사 연구”는 바로 자각하던 자각하지 않던 방법론의 탐구이다. “학술사 연구”에 대한 동의는 최초로 1990년 북경대학, 연경대학, 중국사회과학원, 청화대학의 40대 전후의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들은 이택후의 다음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이미 이택후의 방식에 만족하지 않고 “변증유물론”의 내부로부터 그것을 향해 도전하였다. 동시에, 이택후 등의 학술 속에 감춰져 있는 방법론인 개념의 수의성과 물질일원론에 대항해서 확립하려고 시도했던 주, 객체 이원론 등과 같은 문제의 한계도 폭로되기 시작했다. 그들이 학술사 연구를 제창한 직접적 동기는 80년대 학술의 공소함과 규범이 없다는 것, 그리고 너무 경직된 의식 형태 색채에 대한 불만이지, 복고의 시도는 아니다. 또한 그 후에 이와 같은 제창자 중에서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학술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런 까닭에, “학술사 연구”와 당시 다른 하나의 “5·4시기로 되돌아가자”라는 구호는 동일한 것이고, 더욱 중요한 의의는 그 태도에 있다.<sup>22)</sup>

학술사 연구는 90년대 학자들의 발명이 아니다. 일찍이 20년대 양계초, 30년대 전목이 『중국근삼백년학술사(中國近三百年學術史)』를 저술한 이래, 학술에 대한 정리는 이미 대학자의 작업으로 완성이 되었다. 특히 20년대 후기부터 학술사 연구는 실제로 단순히 물질일원론만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 학자들에게 독자적 영역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90년대는 학술사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데, 바로 그것은 당시에 이미 의식형태를 선전하는 색채를 드러내기 시작했던 사상사 연구를 구원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학술사 연구는……사상사 연구 속에서 사용된 개념, 범주, 술어에 사실 규범을 제공하려 했고, 그것은 광범위하고 왜곡된 사실을 모면했다.”<sup>23)</sup> 이와 같은 학술사 연구의 출발점을 경제치용적 도덕관을 이해하는 표현으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마도 바로 이와 같은 “사상사 구원”의 바람이 현재 중국 사상사와 학술사 연구에 있어서 상호침투의 측면을 조성하였을지도 모른다. — 그것은 양측의 연구영역의 확대를 초래했다.

이 학술사 연구가 가져온 직접적 결과 중의 하나는 연구자들이 5·4 운동 퇴조

22) 이러한 학술사와 관련된 견해는 최초로 90년대 출현하기 시작한 동인지지에 발표되었다. 예를 들면 학술사 연구의 일부 창도자들에 의해 편집된 「學人」 창간호(1991, 11 北京)에 『學術史研究筆談』이 발표되었는데, 당시 연구자의 소박한 생각이 표현되어 있다. 80년대 학술계(사상계를 포함)는 공소한 학풍을 바로잡고, 학술과 사상이 서로 소박한 학술규범을 건립했다. 갈조광은 이 시기의 서술 속에서 학술사를 시간을 차례로 삼아 옛 사람의 구도의 “학술(術)”을 연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사상사는 곧 다른 학술이 추구하는 “도(道)”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갈조광의 견해는 90년대 학자들의 80년대 사상사 연구는 “구도의 학술이 없는(求道無術)”상황이라는데 대한 반대 의견을 대표하며, 그것은 90년대 학술사 연구의 기점과 사상사 연구의 위기가 밀접히 관계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23) 王守常, 「學術史研究芻議」, 「學人」 제1집

후에 사상사의 가장자리 밖에 있었고 더 나아가서 매몰되었던 학술적 성과를 발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 대부분은 서양 학문의 영향을 실컷 받은 후에 중국 학술연구에 진력한 학자들에게서 나온 것이고, 호적이 90년대에 몇 배나 더 주목받는 것은 어찌면 일종의 상징일지도 모른다. 5·4 시기의 물질일원론은 반세기 역사의 실천을 통해서 그것이 결코 한없이 유효할 수 없다는 것이 실증된 후에, 중국의 지식인은 또한 당시에 배척되었던 기타의 학술 취향을 받아들인데 새로이 주목했다. 특히 서양의 영향 하에 “국학(國學)”, 예를 들면 “학형파(學衡派)”에 대한 정리와 연구이다.<sup>24)</sup> 이와 같은 5·4 전후에 대한 회고는 한 방면에서 확실히 중국의 학술계는 실증정신과 사상 표현이 서로 결합된 학술규범을 건립했고, 다른 한 방면에서 그것은 또한 80년대 서양의 각종 사상유파가 번역 소개된 이래 출현한 하나의 형상, 즉 중국 지식인 중에서 서양의 용어를 사용하여 중국의 논리를 상세히 설명한 것과 서로 호응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5·4 시기의 상황과 대단히 비슷하다. 그 의미는 앞으로 중국사상사 연구의 분기는 여전히 대부분 서양학문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학자들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사상사의 문제는 여전히 중국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세계와 접촉하느냐 하는 것이지, 추상화된 중국문화와 서양문화의 대립은 아니다. 장지동은 “중체서용”을 제창했고, 이택후는 “서체중용”을 제창했다. 역사의 두 가지 다른 단계에 중국 지식인은 다른 방식으로 “중국과 서양을 절충하려는” 염원을 표현했고, 그것은 또한 똑같이 오늘날의 “국학열(國學熱)” 속에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중국사상사 연구를 동아시아 사상사의 배경 속에 놓고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나는 중국사상사 연구가 방법론 측면에서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과제는 어떻게 다원화된 시각을 건립하느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방면에 있어서 장애는 최소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호적 연구열이 가져온 연구대상인 실체에 대한 관심이다. 호적의 실증정신은 지금까지 공소함을 끝으로 삼는 바르지 못한 학풍을 바로잡는 측면에서 적극적 작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학자들의 시야를 “사실”에 집중시켜 사람들이 사실 사이의 “관계”를 주목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중국 연구자는 또한 연구에 있어서 실체 사이의 관계 자체와 같은 것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데 익숙하지 않고, 또한 동아시아사상사에서 세계사상사에

24) 학형파는 1922년 출판된 『學衡』 잡지에 의해 명성을 얻었다. 그 핵심인물인 梅光迪, 吳宓 등은 일찍이 하버드대학의 I. Babbitt 문하에서 수학했으며, 미국 신인문주의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그들은 신문화 운동의 철저히 전통을 부정하는 입장에 반대했고, 학리 상에 있어서 전통계승의 중요성을 논증하였다. 이 때문에 문화보수주의로 간주되어졌다. 학형파와 관련된 자료정리와 연구는 최근에서야 시작되었고, 청화대학은 吳宓과 관련된 회고록과 吳宓의 문집을 출판했고, 북경대학은 머지않아 『學衡』 자료집을 출판할 예정이다. 曠新年과 吳方 등의 젊은 학자들은 이미 유관한 연구에 종사하기 시작했다.

이르기까지의 관계 속에서 중국의 사상사 연구의 위치를 정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이것은 아마도 “중화사상”이 방법론의 근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호적, 호적의 실증전신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명분을 분명히 한 후에 호적의 “증거”, “사실”에 대해 질의하지 않은 태도는 마땅히 “질의”되어야만 한다. 다른 하나의 장애는 중국 사상계에서 끊임없이 과학 방법론으로 간주된 진화론이다. 바로 노신이 말한 바와 같이, 진화학설은 중국에서 “마침내 남겨진 하나의 공허한 명사에 불과하다.”<sup>25)</sup> 하지만 바로 그 공허 때문에, 그것은 비로소 과학의 “부호”로 추상화될 수 있었다. 만년의 노신은 그가 『우리는 현재 어떤 아버지가 되고 있는가(我們現在怎樣做父親)』라는 책을 쓸 때의 입장과는 다르게 역사진화론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표시했다.<sup>26)</sup> 하지만 이와 같은 회의파는 어쨌든 소수이다. 역사진화론이 현재의 사상사 연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은 신중히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최소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즉 현재의 중국대륙 연구자들은 아직도 진정 “역사운동은 하나의 진보과정이다”라는 사유 동향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대화는 오늘날 중국인이 추구하는 목표이다. 하지만 그것의 모델은 서양에서 온 것이다. 전근대—근대—현대—후현대, 이와 같은 하나의 역사 진화의 도표 속에서 공시성의 다원화의 공간이 존재하기란 어렵다.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자명하다. 이 점에 있어서 지금의 중국 젊은 학자들과 이택후 세대의 사람들, 더 나아가 5·4 시기 “과학”의 창도자들은 똑같은 사유규칙을 준수하고 있다. 동아시아 각국의 사상사 연구는 아직 진정으로 중국 연구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과 이와 같은 선형적 사고는 무관하지 않다. 상술한 의의 상에 있어서 동아시아사상사 연구자들과의 교류는 우리들이 자신의 연구방법에 대해 돌이켜보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25) 『「進化和退化」所引』, 『魯迅全集』 제4권 참조

26) 『男人的進化』, 『魯迅全集』 제5권 참조.